

중단횡단

인디언 기우제의 비밀

1820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빌라 콜롬비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한 여인이 있었다. 은화한 성품의 부모님 밑에서 부족할 것 없이 자란 그녀는 불행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을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일 년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토록 심한 외도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살던 그녀는 바로 '나이팅게일'이다.

나이팅게일이 '백의 천사'로 불리게 되기까지는 절망 속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 갈고 닦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는 사막 지대에 사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노력을 요한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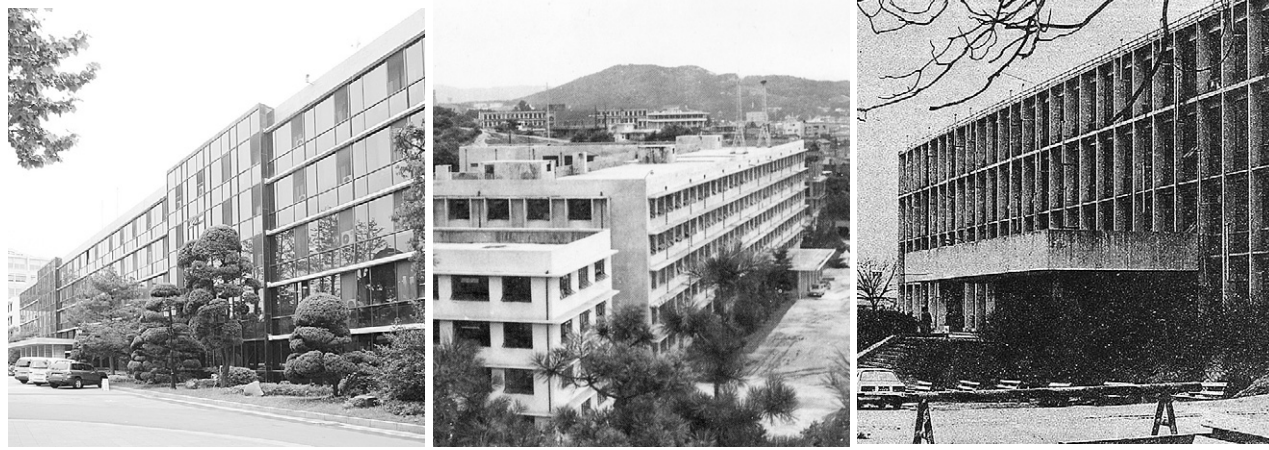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듯, 누구나 결점을 가지고 있다. 그 결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얽매이면 좌절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하지만 스스로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더 초점을 맞추어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끔 생각하는 게 다들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지는 건 어떨까 하는 거다. 타인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자기 자신에게는 냉혹한 채찍질을 하는 사람이 바른 인간상으로 여겨져 온 문화 때문인가?

지난 토요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요즘 부쩍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생각이 든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환갑이 넘은 나이에 자살이라는 길을 선택했던 걸까 싶으면서도 그 역시 스스로에게 좀 더 너그러웠다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만큼 우리도 그 간절함과 너그러움, 여유를 갖는다면 나이팅게일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노회 기자 sline@



특필기고 | 김현섭 본교 교수 · 건축학과



언제부터가 제2공학관을 향한 사람들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다. 캠퍼스 곳곳이 말쑥히 단장되고 속속들이 최신행 건축물이 세워지는 지금, 반세기를 살아온 이 건물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이런 와중에도 제2공학관은 수많은 연구실과 실험실습실을 수용하며 곳곳이 제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건물의 운명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시설의 낙후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불평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한 것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공간부족의 문제다. 대폭 늘어난 공과대학의 구성원과 이미 비좁아져버린 캠퍼스를 생각한다면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더 높은 건물을 짓는 것 만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 제2공학관의 보존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언제 일지 모르나 어쩔 수 없이 철거해야한다면, 이 건축물의 가치를 음미하고 그 역사를 기록해 우리가 오랜 시간 간직한 기억을 보듬어두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제2공학관은 원래 의과대학 실실을 위해 착공된 건물이다. 그러나 그 계획은 학교의 제반문제 무산됐고, 일부 완공된 건물을 1964년부터 교양학부가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뒤, 이공대학 내에 신설된 공학부가 이 건물이 완공됨과

동시에 입주해 들어오면서 서로 다른 성격의 학부가 한 건물을 사용하게 됐다. 학교 측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해 인문사회계 쪽의 과학관(이후 교양관)을 사용하던 이학부와 교양학부가 자리를 맞바꾸도록 조치하면서 이 건물이 이공대학 본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30여년이 지난 1990년대 중반 테크노플렉스가 조성되며 이과대학과 공과대학은 각자의 건물을 갖게 됐고, 이 건물은 '제2공학관'이라 강등돼 명명된다.

또한 제2공학관은 자연계 캠퍼스의 역사를 묵직하게 간직함과 더불어 건축사적 관점에서 볼 때도 그 가치가 자못 작지 않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조명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은 듯싶다. 5층 철근콘크리트조로서 3773평의 면적을 가지고 준공된 이 건물은 예기성을 뒤로 감싸는 얇은 'ㄷ'자형테를 띠고 있으며, 중앙의 계단실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다. 정면은 남남동을 향하며 남문과 조우하는데, 1983년에 완공된 과학도서관과 복문이 함께 엄격한 축적 구성을 이루어 자연계 캠퍼스에 근엄한 권위를 부여해왔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 박동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길룡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은 제 1세대 건축가로 꼽히는 박동진 선생은 본관(1934)을 필두로 △도서관(1937) △서관(1955) △강당(1956) △여학생회관(1958) △교양관(1960) △박물관(1962) 등을 설계함으로써 고려대학교의 캠퍼스 스킵 형성에 특출한 초석을 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본관 등 초기 건물을 지배했던 석조고딕 모티브가 여학생회관에서 근대적 구조 및 공간개념과 교차하기 시작했고, 교양관과 제2공학관에 와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국내 최고의 민족사립학교라는 정체성과 강인한 독립의의 감각이 대학 주요 건물들에 육중한 석조건축을 차용해 했다면, 그 이외의 건물들에서는 근대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근대교육을 받은 건축가에게는 당연한 귀결인 셈이다.

제2공학관을 위한 나의 변명



지 1980년대 중반 이 건물의 정면이 암갈색 유리로 뒤덮이며 차양의 수평성이 무너짐으로 남게 됨으로써 원 장적자의 미감을 반감시켰다. 그리고 벽면과 유리의 사이 공간은 여름철 온실효과를 높이고 동시에 이따금 비둘기의 산란을 돕는 장소로 탈바꿈해 사용자도 하여금 비판의 거리를 하나 더 갖게 한다. 그 이후에는 조금씩의 리노베이션이 있었고 더 나은 학습 및 연구환경 제공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이제 그 유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듯하다.

건축물은 집사의 기억을 담은 매개체다. 공과대학 45년을 거치며 제2공학관은 우리 고대인에게 담고 웃음과 눈물과 아련한 추억을 선사했다. 우리가 경험해 온 '장소'는 결국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는 것일 텐데, 이러한 장소의 소멸은 우리 속 깊은 존재의 흐트러짐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단순한 노스텔지아의 추구가 아니라 끝없는 자아 갱신을 위한 실존적 근거에 확인이다. 고로 새로운 장소의 조성과 소거에는 늘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일 터다. 최첨단 과학 고대를 주장하며 실 세 없이 달음질하는 우리이지만, 때로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한번 돌아보며 숨 고르기 할 여유쯤은 가져야 하지 않겠나. 이것이 제2공학관을 위한 나의 변명(辨明)이다.

관(1937) △서관(1955) △강당(1956) △여학생회관(1958) △교양관(1960) △박물관(1962) 등을 설계함으로써 고려대학교의 캠퍼스 스킵 형성에 특출한 초석을 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본관 등 초기 건물을 지배했던 석조고딕 모티브가 여학생회관에서 근대적 구조 및 공간개념과 교차하기 시작했고, 교양관과 제2공학관에 와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국내 최고의 민족사립학교라는 정체성과 강인한 독립의의 감각이 대학 주요 건물들에 육중한 석조건축을 차용해 했다면, 그 이외의 건물들에서는 근대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근대교육을 받은 건축가에게는 당연한 귀결인 셈이다.

교양관 입면의 격자 루버가 가진 규칙성과 리듬은 미국의 건축사가 H. R. 히치콕이 내세운 국제주의 양식의 한 특색이다. 교양관의 격자에 수평성 보다 수직성이 좀더 강조된 반면 제2공학관에서는 평활한 정면을 가로지르는 다섯줄의 수평 차양이 그 파사드를 결정 지우며 기능주의미학을 선보인다. 1970년대 활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 번째 사진은 이러한 모습을 적절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요컨대 제2공학관은 고려대학교에 현존하는 근대주의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어쩌면 영문인

권 스스로 끊임없는 자기비판과 함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학생들은 운동권-비운동권이 라는 언어 프레임에 갇힌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고, 색안경을 쓴 채로 학생운동을 바라보길 그쳐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생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운동권-비운동권을 운운하며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 운동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사실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언론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에 대학교내 학생 사회가 변화하여 지금까지의 폐해에서 탈피하는데 고대신문이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계속해서 눈을 돌리지 않는 고대신문이 되기를 바란다.

| 권우신 언론학부08

**고대신문** 1947년 11월 3일 창간  
The Korea University Weekly

주간 | 매주 월요일 발행  
발행인 이기수  
편집인 겸 주간 김진원  
인쇄인 고광현  
편집국장 이준형  
취재부장 윤지현  
기획&학술부장 전혜원 / 시사부장 이예슬  
사진부장 박지선 / 문화부장 허미연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편집국 02-3290-1683, 02-923-4408  
FAX 02-928-0879  
총무국 02-3290-1682  
세종캠퍼스 편집국 041-860-1848  
대표메일 news@kukey.com

고대신문을 읽으

비판과 대안 제시 역할하는 고대신문이 되길

5.18을 맞이하여, 지난 1616호(5월 18일자) 고대신문을 장식한 학생운동 기획 기사를 매우 흥미롭게 탐독했다. 학생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각 세력들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 하느냐에 대해 한변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획이었다.

6.25 이후, 우리 사회는 반공이라는 이름 아래에 급속히 우경화된 이데올로기 체제 속에서 살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보를 이야기하며 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온 대학교 학생운동의 의의는 매우 크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학생운동이 퇴보한 것은, 운동권이 자기모순에 빠졌기 때문이다. 진보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하는 운동권이 계파와 정파에 따라서, 선배와 후배에 따라서 경직되고 비민주적이거나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권력을 악용하여 개인적인 이권을 쟁기거나, 권력의 유지를 위해 부정선거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학생 운동 활동을 정계 진출을 위한 경력 쌓기

로 여겨온 이들도 존재했다. 학생들을 계몽시켜야 할 무지몽매한 대상으로 여겨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사회와 연대하고, 필요할 때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학교라는 상아탑이 사회에 대해 지고 있는 책임이다. 그러나 학생 운동은 변화해야한다. 이미 변화하는 세상 속에 NL-PD론은 급속히 분해되었고, 담론의 수준에서도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데이 전야제를 따로 개최하는 등 학생 운동권 내에서는 여전히 NL-PD간의 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툼은 오히려 학생 일반 대중의 불신과 혐오만 불러일으켜 더욱 학생운동세력과 이들을 유리시킬 뿐이다.

정치와 사회에 무관심해져 버린 20대 대학생들을 끌어안고 이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운동

권 스스로 끊임없는 자기비판과 함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학생들은 운동권-비운동권이 라는 언어 프레임에 갇힌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고, 색안경을 쓴 채로 학생운동을 바라보길 그쳐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생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운동권-비운동권을 운운하며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 운동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사실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언론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에 대학교내 학생 사회가 변화하여 지금까지의 폐해에서 탈피하는데 고대신문이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계속해서 눈을 돌리지 않는 고대신문이 되기를 바란다.

| 권우신 언론학부08

■ 쿠키(kukey.com) 이벤트

**천원의 행복이 있는 곳, 스시고!**

다른 음식들도 마찬가지로 맛있지만 밥과 회로만 만들어지는 초밥은 좋은 재료와 만드는 방법 등은 물론 만드는 이의 정성이 맛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이들은 고급 초밥집이 아니면 좋은 재료와 방법, 정성까지 갖든 초밥을 먹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스와이스에선 그러한 생각을 바꿔줄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제 학교 앞에서도 싸고 정성이 듬뿍 담긴 맛있는 초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생겼다. 바로 정대후문에 위치한 '스시고'가 그곳이다. 정대후문 바로 오른쪽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스시고에서는 초밥 1점(초밥 2개)당 천원이 맞출 수 있다.

보통 초밥집이라고 하면 투명하고 신선하며 깨끗한 이미지를 생각하게 된다. 혹은 정갈하고 고급스런 식당을 떠올리기도 한다. 따라서 초밥집이 지하에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어둡침침함, 초밥과는 어울리지 않음 등의 생각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시고는 지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인테리어와 환한 조명으로 인해 여타 다른 초밥집과는 달리 푸근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중략)

\*스시고 초밥 한 점(1000원) 무료

쿠키

박지선 기자 jisun@kukey.com

카메라 사극

나도 인형처럼

흔히 말하는 열쌍, 몸짱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짓눌리는 시대. 인형처럼 예뻐지고 싶은 여자들의 마음.

박지선 기자 jisun@kukey.com

수레바퀴

**본질을 묻지 않는 사회**

일본 근대문학의 대표적인 시마자키 도손의 (파제)엔 이런 장면이 묘사된다. 주인공인 우시마쓰는 자신이 일본의 천민계급 '에타(穢多)' 출신인 것을 숨기고 사범학교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로 결심한다.

그는 수업에 마치고 책상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 만일 그 에타가 이 교실에 와서 여러분에게 국어나 지리를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실은 저는 그 비천한 에타 중 한 사람입니다. ... 지금까지 숨겨온 것은 정말로 미안했습니다. 나는 에타입니다. 더러운 인간입니다" 그러

고는 몇 발짝 물러나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평생 신분을 숨기고 살리는 아버지의 규율을 어기는 일은 분명 그에게 큰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고백엔 보다 근본적인 물음이 부재해 있다. 에타라는 것을 숨겨온 것이 잘못된가, 아니면 그것을 숨길 수밖에 없게 한, 출생을 근거로 특정 집단을 비천하게 취급하는 이 사회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물음. 뿌리를 뒤트는 질문이 결여된 그의 고백은 결국 아무것도 변하게 하지 못했다. 그와 같은 처지에서 괴로워하는 이들의 인생을 구제할 수도, 그들을 부당하게 짓밟아온 사회에 일갈할 수도 없다.

우리 역시 본질을 묻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 노동자들이 왜 일하든 말고 거리로 뛰쳐나와 무언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이들이 저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그들의 가족은, 사회는,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단가를 아무도 묻지 않는다. 가난하고 차별받는 것은 단지 스스로의 능력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시마쓰의 고백은 사회적 실재에 맞선 인간 존재의 낙담을 반영한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의 진보는 오직 뿌리를 흔드는 근본적인 물음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전혜원 기획&학술부장